

한국어 읽기 교육 이해질문 분석 연구*

-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의 읽기 텍스트 이해질문을 대상으로

구 민 지*

차 례

1. 들어가며
2. 분석대상 및 방법
3. 이해질문 분석
4. 이해질문의 상호작용적 활용 방안
5. 나오며

〈국문초록〉

문자언어를 이해하는 행위인 읽기는 텍스트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일련의 인지과정이다. 텍스트의 표면적 내용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학습자의 창조적인 이해 즉, 텍스트에 대한 추론, 비판, 평가 등의 단계까지 학습자를 이끌 수

* 이 논문은 2012년 제119차 한국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의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다.

이 논문에서 발견되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 조언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역량의 부족으로 개선되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발전된 결과를 보이고자 한다.

** 가톨릭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읽기 활동은 바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활동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 읽기 교재의 이해질문이 효과적으로 학습자 중심의 상호작용적 읽기를 도모하며 학습자의 창조적인 이해를 유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재 출판된 한국어 교재 중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텍스트 이해질문을 분석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학문목적 한국어 교재 4종에 수록되어 있는 팔백 여 문항의 이해질문을 분류해 본 결과 사실적 질문이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문 목적 읽기 교재에 상위-확산 질문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 주제어 : 한국어 읽기교육, 읽기텍스트, 이해질문, 학문목적 읽기교육, 질문 유형

1. 들어가며

읽기 교육에서 텍스트와 학습자의 언어적 지식 자체가 중요했던 1960 년대의 전통적인 접근법의 시기를 지나 현재는 텍스트와 학습자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학습자 중심 교수법, 과정 중심의 읽기, 상호작용적 모형이 읽기 교육의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는 핵심 개념이 되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어 교육에서의 읽기란 읽기자료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고급 단계 읽기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텍스트의 표면적 내용에 대한 단순

한 이해를 넘어서 학습자의 창조적인 이해 즉, 텍스트에 대한 추론, 비판, 평가 등의 단계까지 학습자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읽기 활동은 바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활동이다.

대부분의 한국어 읽기 교재에는 텍스트와 그에 부속된 이해질문이 제시되어 있으나 과연 이 이해질문들이 효과적으로 학습자 중심의 상호작용적 읽기를 도모하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현재 출판된 한국어 교재 중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텍스트 이해질문을 분석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기존 교재의 이해 질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이해 질문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분석 대상 및 방법

2.1. 선행 연구

국어교육이나 독서교육에서는 읽기 이해질문에 대한 연구가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서는 읽기 교육 관련 연구의 진행 정도에 비해 읽기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이해질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한국어교육에서의 본격적인 읽기 이해질문 연구는 마쓰자키 마히루(2009), 정선화(2010) 등이 있을 뿐이고 김명순(2002), 김지영(2005), 김정숙(2006), 김하령(2008), 이은주(2008) 등에서 읽기 활동이나 과제라는 포괄적인 개념 속에서 이해질문을 다루고 있다.¹⁾

1) 한국어 읽기 교육 분야의 교재나 연구에서 활동과 과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

이해 질문에 대한 통찰을 제시해 주는 해외 논저로는 Bloom 외(1956)²⁾, Kindsvatter 외(1988)³⁾, Grabe & Stoller(2002), Nuttall(1996)⁴⁾, Day·Park(2005)⁵⁾ 등이 있다.

2.2. 이해질문 분석 대상 및 방법

기존의 한국어 읽기 교재 중에서 출판 목적이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 교육이며 그 교육 대상자가 대학교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대학생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교재를 선택하였으며 그 중에서 임의로 다음 4종의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가. 최윤곤(200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독해, 한국문화사

나. 권영민 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읽기, 아름다운 한국어학교

다. 허용(200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인문 한국어, 다락원

라. 이화여자대학교언어교육원(2008),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읽기·쓰기,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⁶⁾

용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진 듯하다. 그러나 이해질문과 활동 및 과제 사이에는 정확한 개념적 구분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직관적으로 이해질문과 활동을 구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읽기에서의 활동(과제)과 이해질문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이 필요하겠으나 이는 추후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 2) Bloom 외(1956)의 교육목표분류학에서 제시하는 6단계 인지 영역 -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 3) Kinsvatter 등의 발문분류체계 - 하위-수렴 질문, 상위-수렴 질문, 하위-확산 질문, 상위-확산 질문(류재인, 2006:21 재인용)
- 4) 읽기 질문 유형 6가지(Nuttall, 1996:188-189) - 축어적 이해 질문, 재해석 질문, 추론 질문, 평가 질문, 개인적 반응 질문, 집필 의도 표현방식에 대한 질문
- 5) 이해의 유형 6가지(Day & Park, 2005:62-64) - 축어적 이해, 재조직화, 추론, 예측, 평가, 개인적 반응

질문 분석·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 후 각 교재에서 한 편의 텍스트를 추출하여 하기 기준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한다.

- ㄱ. 사실-추어적 질문부터 확산적 질문까지 4단계의 질문이 적합하게 분포되어 있는가?
- ㄴ. 질문의 목적이 뚜렷한가?
- ㄷ. 질문의 내용이 모호하지 않은가?
- ㄹ. 학습자가 텍스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효과적으로 평가하는가?

ㄱ항목은 하나의 읽기 텍스트에 부속되어 있는 질문 전체가 읽기 발달 단계에 맞게 질문 유형 분포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한 기준이다. 초급 학습자를 위한 읽기 텍스트라면 사실적 질문이 당연히 많을 것이고 고급 학습자를 위한 읽기 텍스트라면 추론적 질문이나 확산적 질문과 같이 그 대답이 창의적이고 개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위-인지 질문이 많을 것이다. 학문목적 한국어 교재는 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재이므로 이해질문으로서 상위-인지 질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ㄴ항목은 읽기 텍스트의 이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적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질문인지 따져 보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다. 간혹 이러한 질문은 왜 있는지, 텍스트 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는 질문들도 보이기 때문에 설정한 항목이다. ㄷ항목은 질문이 명확한 단어와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질문의 의도가 금방 파악되는지를, ㄹ항목은 하나의 텍스트에 부속되어 있는 질문 전체가 학습자의 텍스트 내용 이해 정도를 효과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질문들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 6) 가,나,다 세 권은 본 연구자가 가톨릭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부 교양필수 과목인 ‘분석과 비판의 기초’에서 한 학기 씩 주교재로 삼아 강의를 해 본 교재여서 연구 대상 자료로 선정하였다.

항목이다.

ㄱ항목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 연구의 질문 유형 분류를 참조하고 텍스트 내용의 이해 측면과 학습자 대답의 표현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한국어 읽기 교재의 이해질문을 분류하기에 알맞은 형태로 이해질문 유형을 구조화하였다.⁷⁾

<표 1> 이해질문 분류 기준표

이해 측면 \ 표현 측면	텍스트에 있는 언어 그대로 대 답하는 추어적 질문	텍스트의 언어 를 바탕으로 재 구성하여 대 답하는 재구성 질 문	자신의 언어로 대답하는 창의 적 질문
사실적 질문	○(1-a유형)	○(1-b유형)	
추론적 질문	△	△ ⁸⁾	○(2유형)
확산적 질문			○(3유형)

1-a유형) 사실-추어적 질문 : 텍스트에 답이 그대로 나와 있는 질문으로 텍스트의 문장만 이해하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1-b유형) 사실-재구성 질문 : 텍스트의 표면 내용을 이해하면 답은 알 수 있으나 학습자가 텍스트의 단어나 표현, 또는 자신의 언어를 이용하여 답을 재구성해 내야 하는 질문이다. 사실-추어적 질문과 사실-재구성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는 폐쇄형 질문에 해당

7) 본고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귀납적으로 도출된 것으로서 실제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학문목적 한국어 읽기 교재의 질문을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형으로 분석해 보면서 기존의 유형 분류 체계를 수정하고 변형하여 만들어 낸 것이다.

8) 이해질문의 유형 중 이해 측면에서는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만 표현 측면에 있어 텍스트의 언어를 재구성해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계량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보다 정밀한 이해질문 유형 분류 조사는 추후 연구로 미룬다.

한다.

2유형) 추론-창의적 질문 : 텍스트의 내용에 함의되어 있는 답을 찾아 내서 자신의 언어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으로 추론적 읽기와 관련된다. 추론적 질문은 질문에 따라서 폐쇄형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개방형 질문이 될 수도 있다.

3유형) 확산-창의적 질문 : 텍스트의 내용과 관련은 있으나 학습자가 스스로 답을 생각해 내거나 조사해서 자유롭게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서 적용, 분석, 평가, 창의 등의 인지 능력을 요하는 질문이다.

이상의 기준들로 각 교재에서 1편 씩 무작위로 추출한 총 4개 텍스트의 이해질문들을 분석해서 세부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총 803문항의 이해 질문에 대해서는 1항목에 해당하는 유형 분류만을 수행하여 학문 목적 읽기 교재에 적합한 유형의 질문들이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3. 이해 질문 분석

3.1. 교재별 이해 질문 세부 분석

3.1.1. [가]교재

[가]교재는 TOPIK 고급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독해 교재이다. 제1장은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준 발음법에 대한 부분으로 텍스트는 없다. 첫 번째 텍스트인 4강 텍스트의 이해질문을 유형별로 나

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텍스트 전문⁹⁾

국어의 특징(최윤곤, 2007:56-57)

한민족이 사용하는 한국어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표현의 다양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한국어가 그 표현에 있어서 다양하면서도 섬세하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의 다양성을 뒷받침하는 것에는 호칭어·지칭어의 발달, 색채어의 발달, 높임법의 발달 등이 있다.(1번의 ①)

한국어에는 호칭어·지칭어가 발달해 있다. 이를테면, “누가 왔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아저씨가 오셨습니다.”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저씨’ 대신에 ‘작은아버지, 삼촌, 외삼촌, 고모부, 이모부, 당숙’ 등의 말로 화자와의 관계를 잘 나타내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대신에 ‘오셨다, 오셨구나, 오셨어, 오셨어요’ 등과 같이 청자에 대한 존대의 정도를 달리 나타내야 할 경우도 있다.(2번의 ①) 이는 친족 관계에 관한 윤리적 제도가 발달한 우리의 대가족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2번의 ②) 이러한 다양한 관계에 대한 표현이야말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2번의 ③)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단순한 것만 고집하여, 만약 “누가 왔는가?”에 대한 유일한 답으로 “그가 왔다.”라는 표현만이 가능하다면, 이 얼마나 답답하고 부족한 대화이겠는가.(중략)

한국어의 특성을 말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은 한국어의 높임법이다.(1번의 ④) 어떤 이들은 한국어는 다양한 높임법 때문에 복잡하고 배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하 관계를 중시하는 비민주적인 언어라고 혹평하기도 한다.(2번의 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언어 능력 부족을 탓해야 할 것이지, 결코 한국어의 난해성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앞서서도 제시한 바 있지만, ‘오셨습니다, 오셨다, 오셨구나, 오셨어, 오셨어요’ 등과 같이 청자에 대한 높임의 정도를 나타내고 싶은 대로 화자는 다양한 종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5번의 ⑤) 각각의 악기들이 관현악단이나 합창단의 각 파트를 이루어 멋진 화음을 만들어 내듯이, 다양한 높임법의 발달은 화자와 청자들의 관계를 원활하게 할 뿐만 아

9) 본고의 유형 분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텍스트 전문을 제시한다.

나라(2번의 ④), 사회 구성원 간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1번의 ②)

우리가 국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국어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국어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며, 한국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견지해 온 윤리적, 문화적 가치 판단의 체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도 된다.(1번의 ③) 그러므로 국어는 우리의 삶을 이루는 원형질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서 능동적인 국어 생활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다.

<표 2> [가]교재 4강 이해 질문(최윤곤, 2007:58-59)

1. 다음 글을 읽고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① 한국어에는 □, □, □, □이/가 발달해 있다. ② 다양한 높임법의 발달은 화자와 청자들의 관계를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간의 □에도 기여할 수 있다. ③ 국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견지해 온 □, □ 가치 판단의 체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④ 한국어의 특성을 말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은 한국어의 □이다. ⑤ 화자는 청자에 대한 높임의 정도를 나타내고 싶은 대로 다양한 □를 사용할 수 있다.	1-a
2. 다음 글을 읽고 옳은 것은 ○, 틀린 것은 × 하십시오. ① □ 한국어에는 화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청자에 대한 존대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② □ 한국에서 호칭어와 지칭어의 발달은 우리의 대가족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③ □ 한국어의 다양한 관계 표현은 의사소통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 ④ □ 다양한 높임법의 발달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복잡하고 힘들게 한다. ⑤ □ 어떤 이들은 한국어의 높임법 때문에 배우기 어렵다고 혹평하기도 한다.	1-b
3. 호칭어와 지칭어를 예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2
4. 한국어의 다양한 색채어에 대해서 이야기 하십시오.	3
5. 본문을 읽고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1-b

1번의 빈칸 채우기 문제를 시험을 치르듯 텍스트를 안 보고 푼다면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읽기 텍스트를 보고 푼다면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도 텍스트의 문장에서 단어를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질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한 질문은 학문 목적 읽기 교재의 이해질문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2번의 질문은 텍스트에 ‘2번의 ①’이라고 표시한 부분과 질문에 제시된 문장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텍스트의 문장을 재구성한 문장을 이해하여 진위를 가리는 질문으로서 사실-재구성 질문에 해당한다.

3번의 질문은 텍스트에서 호칭어와 지칭어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 호칭어와 지칭어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내서 설명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이것이 만약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한 학습자의 선행지식을 알고자 하는 의도로 제시된 질문이라면 읽기 전 질문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해질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텍스트에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한다.

4번과 같은 질문을 모호한 질문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색채어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라는 것인지 아무런 안내 없이 무조건 다양한 색채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지시는 학습자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이며 목표 없는 질문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색채어를 말해 보기, 사전에서 색채어를 최대한 많이 찾아 보기, 찾은 색채어를 색깔별로 분류해 보기, 제시된 색채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기, 특이한 색채어의 색깔을 추측해 보기 등의 보다 구체화된 지시가 필요할 것이다. 4번 질문이 책에 나와 있는대로 색채어에 대해 설명하라는 질문이면 사실적 질문이 될 것이고 한국어 색채어에 대한 본인의 느낌을 이야기하라는 질문 또는 한국어 색채어와 본인 모국어 색채어를 비교하여 이야기하라는 질문이면 확산적 질문이 될 것이다.

5번 질문은 거의 모든 학문 목적 읽기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약하기 과제이다. 텍스트의 표면적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내용을 재구성하는 과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요약하기 과제를 사실-재구성 유형으로 본다.

3.1.2. [나]교재

[나]교재는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독교재로 개발되었고 학습자 중심의 교재임을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6단원 ‘읽고 나서’에 5문항의 질문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텍스트 전문

무슨 띠세요?(권영민 외, 2009:43-44)

한국말에는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속담이 있다. 이것은 찬물을 마실 때도 윗사람 먼저 마시고 아랫사람이 그 다음에 마신다는 뜻으로, 아무리 별 볼일 없는 것이라도 윗사람부터 대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1번) 그래서 한국에서는 식사를 할 때도 윗사람이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5번의 1)

사회생활에서 위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인지 정해져 있어야 한다. 집안에서는 당연히 어른이 위이고 아이가 아래이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위이고 후배가 아래이며, 직장에서는 직급이 높은 상사가 윗사람이다.(3번) 그런데 젊은 사람이 높은 직급이고 나이를 더 먹은 사람이 부하 직원일 경우 서로를 대하는 행동이나 말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5번의 2) 이러한 일은 대학에서도 일어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해 또는 2년 후에 대학에 들어가는 재수생이나 삼수생의 경우(5번의 3) 고등학교 후배들과 함께 강의를 들으며 대학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학생을 대학에서 처음 만난 경우에서는 친구로서 반말을 하며 지내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선배로 알고 지내던 학생은 존댓말을 쓰게 된다. 문제는 이

세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난다. 학생 A는 학생 B,C와 서로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주고받는데, 학생 B는 학생 C에게 존댓말을 쓰며 이름을 못 부르고 “영수 형!”처럼 이름 뒤에 ‘형’을 붙여서 선배의 대접을 해 주어야 한다.(5번의 4)

한국인은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외국인들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질문들을 한다. “몇 살이세요?”, “몇 년 생이세요?”, “저는 호랑이 띠인데, 무슨 띠세요?”, “저는 08학번인데, 몇 학번이세요?” 이러한 질문들은 외국인에게는 어색할 수 있으나, 한국인에게는 매우 자연스럽다.(5번의 5) 상대방과 나의 위계가 정해져야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말투나 행동 방식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2번)

<표 3> [나]교재 6단원 이해 질문(권영민 외, 2009:45)

1.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는 속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a
2. 한국인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이나 학번을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a
3. 한국에서 위계를 정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 글에서 찾아 봅시다.	1-b
4. 이 글에 나오는 예처럼 나보다 직급은 높고 나이가 어린 직장 상사에게 어떤 말투와 행동을 하면 좋을지 말해 봅시다.	2
5. 아래에서 맞는 것에는 ○표, 틀린 것에는 ×표 하세요. 1) 한국에서 식사를 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보다 먼저 식사를 시작하면 안 된다. 2) 사회생활에서 위계는 무조건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대학에 들어간 사람을 재수생이라고 부른다. 4) 대학교에서 후배일지라도 고등학교 선배이면 ‘형’ 으로 대접한다. 5) 한국에서는 첫 만남에서 나이를 묻는 것이 무례한 행동이 아니다.	1-b

1번과 2번은 답이 되는 문장이 텍스트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추어적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3번은 텍스트를 이해하면 답을 충분

히 알 수 있으나 텍스트에 나오지 않은 ‘학년’ 등과 같은 단어로 답을 제시해야 하고 텍스트에는 있지만 ‘나이, 직급’ 등의 단어를 답으로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재구성 질문에 속한다. 4번은 텍스트에 비슷한 예가 제시되어 있지만 그 예를 바탕으로 추론해야 하는 질문이기에 2유형에 속한다. 5번은 텍스트의 내용을 재구성한 문장으로 구성된 OX문제로서 사실-재구성 질문에 포함시킨다. 6단원은 텍스트 자체가 한국어 수준 중급 이하의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학문목적 고급학습자를 위해서라면 더 많은 상위 인지 질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1.3. [다]교재

[다] 교재는 인문 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예비 학부생을 위해 만들어진 교재이다. 5과의 ‘내용 이해하기’에서는 사실적 질문 5문항, O× 질문 4문항, 빈칸 채우기 3문항, 요약하기 1문항 등 총 13개의 문항을 통해 학습자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했다.

텍스트 전문

대학은 어떤 곳인가?(허용, 2007:70-71)

(전략)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머리와 가슴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머리와 가슴에 해당하는 대학이 제 구실을 해야 한다. (1번의 1) (중략) 오늘날의 사회에서 대학이 맡고 있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 (1번의 2)

하나는 연구 기능이다. 생각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 분야에 걸쳐 앞선 선현들의 이야기도 찾아보고 다른 사회에서의 지식도 구해 보고, 서로 토론도 해 보고, 실험도 해 보고, 앞날을 점쳐 보기도 하면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을 창출해 내는 일이 바로 이 연구 기능이다. (3번의 1) 따라

서 한 사회의 지식 수준은 그 사회에 속해 있는 대학의 연구 수준과 같게 된다. (2번의 1) 대학의 연구 수준이 낮은 사회는 그만큼 낮은 지식 수준에서 허덕이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훌륭한 대학들을 가진 사회는 다른 사회에 비해 높은 지식의 활용으로 앞선 생활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의 두 번째 기능은 교육 기능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 온 지식을 정리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수하는 기능이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중책을 맡고 일해 나가야 할 젊은이들에게 바른 지식과 바른 양심을 나누어 주어 사회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는 기능이다. (1번의 4) 대학은 해마다 그 사회의 똑똑한 수재들을 골라 뽑아 몇 년간 데리고 있으면서 가르쳐서 사회에 내보내고 있다. 이 교육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회가 아무리 높은 지식과 끝은 양심을 지닌 대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는 무지와 어지러운 속에서 헤매게 된다. (3번의 2) 사회 전체에 바른 지식과 끝은 마음이 교루 퍼질 수 없기 때문이다. (2번의 2)

세 번째 기능은 이른바 사회봉사이다. 대학은 지식의 창출과 학생 교육 이외에도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는 기능을 한다. (1번의 5) 아무리 대학에서 잘 가르쳐 내보낸 인재라 할지라도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 이러한 사회봉사 기능은 특수 연구소가 감당해 주기 (2번의 4) 때문에 점차로 중요성이 덜하게 되지만 아직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다. (3번의 3)

따라서 대학은 대학 본연의 기능인 연구 활동 (1번의 3, 2번의 3)으로 쌓인 업적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식의 창출과 학생 교육 이외에 대학은 사회봉사로서의 지식 보급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4> [다]교재 5과 이해 질문(허용, 2007:74-75)

1. 본문의 내용을 잘 읽고 다음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1) 대학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오늘날 대학의 기능은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3) 대학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2):1-a 나머지: 1-b
--	------------------------

(4) 사회 전체의 올바른 지식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대학이 담당해야 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5) 대학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2. 본문의 내용에 맞는 것에 ○, 맞지 않는 것에 × 하십시오. (1) 한 사회의 지식 수준은 그 사회의 대학 연구 수준과 비례한다. (2) 대학은 교육을 통해 사회 전체에 바른 지식을 퍼뜨린다. (3) 대학 본연의 기능은 학생 교육 활동이다. (4) 특수 연구소는 전문 지식 보급을 통해 사회에 봉사한다.	1-b
3. 다음 문장을 읽고 ‘대학의 세 가지 기능’ 중 알맞은 것을 빈칸에 써 봅시다. (1) 생각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 분야에 걸쳐 앞선 선현들의 이야기도 찾아보고 다른 사회에서의 지식도 구해 보고, 서로 토론도 해 보고, 실험도 해 보고, 앞날을 점쳐 보기도 하면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을 창출해 내는 일이 바로 이 _____ 기능이다. (2) 이 _____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회가 아무리 높은 지식과 곧은 양심을 지닌 대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는 무지와 어지러움 속에서 헤매게 된다. (3) 아무리 대학에서 잘 가르쳐 내보낸 인재라 할지라도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 이러한 _____ 기능은 특수 연구소가 감당해 주기 때문에 점차로 중요성이 덜하게 되지만 아직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다.	1-a
4. 다음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다음 글을 완성해 봅시다. ■ 대학이 담당하는 기능 세 가지 : (1) 연구 기능 (2) 교육 기능 (3) 사회봉사 기능 오늘날 대학이 _____ 첫째는 _____ 둘째는 _____ 셋째는 _____ 따라서 대학은 _____	1-b

1번 문항은 본문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도 답할 수 있는 (2)번을 제외

하고는 텍스트 내용을 잘 이해해야 답할 수 있는 질문들로 잘 구성되어 있고 2번 문항도 학습자의 본문 이해도를 잘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3번은 본문의 문장을 그대로 제시하고 단어 하나를 넣는 빈칸 채우기 문제로서 학습자의 내용 이해도 점검이라는 이해질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3.1.4. [라]교재

[라] 교재는 대학 또는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문 목적 읽기, 쓰기 교재이다. 각 텍스트에는 중심내용 요약 활동과 5~6개의 이해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1장 읽기 텍스트의 이해질문은 다음과 같다.

텍스트 전문

직업의 의미와 가치(이화여자대학교언어교육원, 2008:12)

■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석공 세 명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그런데 같은 일은 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대답은 각양각색이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돌을 깨고 자르는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공사장에 나와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난 사람은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자기는 지금 훌륭한 사원을 짓고 있다고 대답했다.(1번) 이 이야기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로서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의 창간자인 아돌프 옥스(Adolph Ochs)가 직업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빗대어 한 말이다.

■ 직장은 삶의 터전인 동시에 기쁨과 보람의 일터이다. (중략)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을 단순히 돌을 자르고 깨는 행위로만 여기고(2번) 있고, 어떤 사람은 단지 경제적인 목적의 수단으로 ①간주하고 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일이 얼마 후에는 훌륭한 사원을 짓게 된다는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일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중략) 게다가 직업을 개인의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만 해석하여, ②보수에 따라 직업의 가치가 좌우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의 많고 적음에 연연하면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기 어렵다. (중략) 이럴 때일수록 직업이 가지는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뚜렷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직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며, 자아실현의 보람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4번)

<표 5> [라]교재 1장 이해 질문
(이화여자대학교언어교육원, 2008:13-14)

I. 각 단락의 소제목을 붙이고 중심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1-b
II.1. 1, 2 단락에서 설명한 직업인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일을 단순한 행위로만 생각하는 사람 2) 일을 통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 3) 직업을 수입을 위한 활동으로만 보는 사람 4) 직업을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수단을 보는 사람	1-b
II.2. ①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2 단락에서 찾아 쓰십시오.	2
II.3. ②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직업의 가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2) 직업을 선택할 때는 수입의 많고 적음을 고려해야 한다. 3) 직업의 중요도가 수입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4) 경제적인 목적의 수단을 직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있다.	2
II.4. 앞글을 통해서 글쓴이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1-b

I은 중심 내용 요약하기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이해질문의 마지막 단계에 제시하는 유형인데 특이하게 처음에 제시하고 있어서 학습자들이 다소 어려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질문은 텍스트의 사실적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정리하는 의미로 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II.1은 답지의 내용이 텍스트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고 이를 텍스트의 내용과 비교하

여 맞는 답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사실-재구성 유형에 포함된다. II.2는 텍스트에 나온 ‘간주하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로 ‘여기다’를 찾아 쓰는 질문으로 학습자가 ‘돌을 자르고 깨는 행위로만 여기고 있고, ~ 경제적인 목적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라는 문장을 읽으며 문장의 내용과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여기다’와 ‘간주하다’가 비슷한 의미라는 것을 추론해 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이 앞서 제시한 기준표의 추론-재구성 유형에 속하지만 여기서는 2유형으로 분류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모든 텍스트의 이해질문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 장에 제시하고자 한다.

3.2. 이해질문 유형별 분류 결과

3.1장에서 보인 방법으로 모든 이해질문을 분석한 결과를 교재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가],[나]교재의 이해질문 유형별 분포

[가]	1-a	1-b	2	3
1				
2				
3				
4	5	6	1	1
5	5	7		1
6	5	7	1	
7	5	7		1
8	5	6	1	1
9	6	7		
10	5	7		1
11	6	6		1
12	5	7	1	
13	6	7		
14	5	6		2

[나]	1-a	1-b	2	3
1	1	5	1	2
2	2	5	2	
3		6	2	1
4	3	6		
5	1	6	2	
6	2	6	1	
7	1	7	1	
8	1	6	1	1
9	1	7		1
10	1	7		1
11	3	6		
12		8		1
13	2	7		
14	1	6	1	1

15	6	7		
16	5	7	1	
17	6	6	1	
18	5	6	1	1
19	5	7	1	
20	5	7		1
21	5	7	1	
22	5	8		
23	5	7		1
24	5	6		2
25	5	7		1
26	5	8		
27	5	7		1
28	5	7		1
29	5	6	1	1
30	6	6		
합계	141	182	10	17
분포	30.4	52	2.9	2

15		8		1
16	2	6	1	
17	1	6		
18	1	7		1
19	1	7	1	
20	3	6		
21	3	5	1	
22		6	2	1
23	2	7		
24	3	6		
25		9		
26	4	5		
27	3	6		
28	4	5		
29	1	8		
30	2	6	1	
합계	49	191	17	13
분포	18.1	70.7	6.3	4.8

<표 7> [다],[라]교재의 이해질문 유형별 분포

[다]	1-a	1-b	2	3
5	4	9		
6	2	3	2	1
7	1	3		5
8		5		1
9	3	11		
10	5	1	1	1
11	5	6	2	
12	5	7		
13	4	8		1
14	3	9	1	
15	3	7		
16	1	1	3	1
합계	36	70	9	10
분포	28.8	56.0	7.2	8.2

[라]	1-a	1-b	2	3
1		3	2	
2	1	3		2
3	2	4		
4		4		
5	3	3		
6	1	4		
7	3	2		
8	2	3	1	
9	1	3	1	
9.1		3	1	
10	1	4	1	
합계	14	36	6	2
분포	24.1	62.1	10.3	3.4

빈칸 채우기와 다섯 문항의 ○×문제와 그 외 2문항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교재의 빈칸 채우기 문제는 1-a유형이며 ○×문제는 1-b유형이고 나머지 2문항의 질문을 분류한 결과, 총 350개의 문항 중 1유형은 323개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1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매 단위마다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빈칸 채우기 문항과 ○×문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유형의 문제를 제외하면 사실-재구성 질문과 확산 질문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교재의 이해질문은 일괄적으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270개의 문항 중 1유형이 총 240개로 전체의 88.9%를 차지하고 있어 [가]교재와 마찬가지로 사실적 질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0개의 ○×문제를 제외한다 해도 사실적 질문이 상위-인지 질문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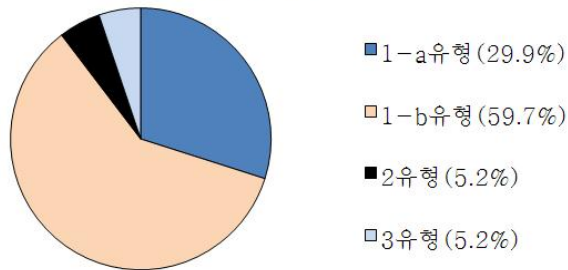
[다] 교재는 각 단위마다 조금씩 다르게 ‘내용 이해하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와 요약하기는 1-b유형으로 분류한다. 총 125개의 문항 중 1유형이 106개로 전체의 84.8%를 차지하고 있어 역시 [다]교재도 사실적 질문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교재는 각 단위마다 ‘내용 이해’라는 제목 하에 두 부분의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각 단락의 소제목을 붙이고 중심 내용을 요약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3~5문항 정도의 단답형이나 선다형의 내용 이해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58개의 문항 중 1유형이 총 51개로 이해질문의 대부분이 사실적 질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종 교재의 전체 이해질문 803문항 중 1유형은 719개로 전체의 8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문 목적 읽기 교재의 이해질문은 대체적으로 사실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교재의 이해질문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괄적으로 다섯 문항의

<표8> 이해질문 유형별 분포



4. 이해질문의 상호작용적 활용 방안

기존의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 교재의 이해질문이 사실적 질문에 치우쳐 있고 상위 인지 전략을 활용하게 하는 이해질문이 부족하다는 점을 착안하여 한국어 고급 읽기 자료와 이해 질문의 실재를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해질문의 상호작용적 활용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1) 읽기 텍스트

진정한 웰빙은 무엇인가¹⁰⁾

요즈음 우리는 주변에서 ‘웰빙’이란 말을 자주 듣는다. 원래 사전적 의미로 웰빙은 ‘복지, 행복, 안녕’을 의미하는 단어이나 근래 우리 사회에서는 그 의미가 우선적으로 ‘잘 먹고 잘사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몇 년 전부터 건강과 장수에 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부쩍 높아지고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권하는 식품이나 유기 농법으로 재배한 야채들이 불티나게 팔린다. 또 건강식품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몸에 좋다고 밝혀진 콩이나 두부 요리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고, 해초류, 나아가서는 레드와인 등도 찾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듣게 되는 웰빙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웰빙을 추구하는 것이 모두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요즈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웰빙은 그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보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웰빙은 물질적인 측면이 반영되기는 하겠지만 분명히 그 수준에서만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어에서 유래한 그 단어의 뜻을 가만히 따져 보면 그야말로 ‘잘 존재함’이다. 여기서는 분명 소유나 물질의 측면보다는 존재나 정신의 측면이 더 깊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비싼 유기 농작물을 먹고, 더 보기 좋은 몸매를 위해 요가 센터를 찾고, 호텔에서 스파욕을 하는 것을 웰빙으로 보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라고 할 수 있다.

웰빙은 궁극적으로 정신적 행복에 이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돈을 투자해서 물질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누려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웰빙은 일상을 건강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존재에 대해 자각하고자 노력하고, 자연과의 친화나 인간관계의 조화를 이루며, 삶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닐까? 물론 건강식품을 먹고 요가 수련을 하고 스파욕을 즐기는 것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수단들이 곧 웰빙이라고 받아들이는 일부의 인식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한 것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정한 웰빙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이해질문

(1) 어떤 현상을 통해 사람들이 웰빙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해 쓰십시오.

(가) _____ (20자 이하)

(나) _____ (30자 이하)

(다) _____ (20자 이하)

모범답안)

(가) 건강, 장수 관련 프로그램의 시청률 상승

10) 한국문화사에서 출판한 최윤곤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독해』 84,85쪽에 실려 있는 텍스트를 개작했음을 밝힌다.

(나)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 권하는 식품과 유기농 야채 판매율 증가

(다) 콩이나 두부 요리, 해초류, 레드와인 소비량 증가

(2) 해초류와 레드와인 등을 찾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범답안) 해초류와 레드와인이 몸에 좋다고 밝혀졌고 몸에 좋은 것을 먹
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3) 저자는 웰빙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범답안) 물질의 측면과 정신의 측면

(4)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웰빙의 개념에 대해서 저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범답안) 사람들은 웰빙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인식
하지만 저자는 웰빙은 결코 돈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5) 저자가 진정한 웰빙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자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반대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질문은 첫째 단락의 내용을 이해하면 쓸 수 있는 사실적 질문이
나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재구성 질문에 해당한
다. 그러나 교사의 의도대로 학생들이 쓰지 않고 텍스트의 문장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글자 수를 제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래서 최대한 요약하여 재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처음부터 학
습자에게 답을 쓰도록 하지 않고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협상의 과정을
거친 후 모범 답안에 학습자가 근접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번 질문은 건강식품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몸에 좋다고 밝혀진 콩이
나 두부 요리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앞 절의 내용으로 답을 미루
어 짐작할 수 있고 텍스트의 표현을 적당히 재구성하여 답할 수 있으며
로 추론-재구성 질문에 해당한다. 단순한 추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

해 측면에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고 표현 측면에서도 스스로 생각해서
재구성해야 하는 질문이 사실적 질문보다 사고력 증진이나 언어 능력 향
상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3번 질문은 텍스트에 있는 표현으로 답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물질의
측면과 정신의 측면이 저자가 제시하는 웰빙의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유형이
일종의 추론-추어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숙달도가 그다지 높
지 않은 학습자들일 경우 이해는 추론 능력을 요하지만 표현은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언어의 도움을 받아서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종류
의 질문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¹¹⁾

5번 질문은 저자의 의견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개방
형 질문으로서 전형적인 확산-창의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질문은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유용한 질문이 될 수도 있지
만 학습자가 ‘반대한다, 동의한다’ 등의 단답형의 대답만 하고 만다면 무
의미한 질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자
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반대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처럼 질문을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학습자의 생각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대답도 구체화시킬 수 있다.

5. 나오며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의 이해질문 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특별히 학문 목적 교재의 읽기 텍스트와 이해
질문의 분석을 실시하여 이해 질문의 양상과 문제점을 짚어 보고 그 대

11) 4번 질문은 1번과 같은 사실-재구성 유형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아직까지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 교재가 많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라 4권의 교재만을 선정했는데 교재 편수로만 본다면 교재에 대한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겠으나 대상 텍스트가 거의 팔십 편에 달하고 그 안에서 분석한 이해 질문이 팔백 문항에 육박하므로 이해 질문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이해 질문 분류 기준의 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분석자간 신뢰도나 안면 타당도를 구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와 표현을 모두 고려한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한국어 읽기 교육에 활용되는 이해질문을 분류하는 기준을 새로이 제시했다는 점과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 교재에 사실적 질문이 과도하게 많다는 사실을 계량 조사로 밝혔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추론 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읽기 능력 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상위-확산 질문이 많이 제시되어야 한다. 실제로 한국에 유학을 와서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언어 연수만 받으며 사실-추어적 읽기에만 익숙해진 유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비판적 읽기나 창의적 읽기를 하지 못한 채 하위-인지 읽기 능력만을 사용할 뿐이며 이러한 현상은 그들의 말하기 실력과 작문 실력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고급의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교재나 교육과정에서는 단순 지식 질문을 과도하게 제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대학생으로서의 고등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읽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읽기 이해질문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석 외 공역(2005), 『교육과정 수업평가를 위한 새로운 분류학』, 서울:아카데미프레스.
- 권영민 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읽기』, 서울:아름다운 한국어 학교.
- 김명순(2002), “읽기교육에서의 과제 의 기능”, 『한국어문교육』 (한국어문교육학회) 11, 155-174쪽.
- 김정숙(2006), “고급 단계 한국어 읽기 자료 개발 방안”,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32, 139-158쪽.
- 김지영(2005), “담화능력 배양을 위한 읽기·쓰기 통합 과제 개발 방안”,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6-2, 109-129쪽.
- 김하령(2007), “읽기과정 중 과제 유형과 텍스트 유형이 한국어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제인(2006), “초등학교 과학수업을 위한 발문 분류틀 개발과 적용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마쓰자키 마히루(2009), “한국어 읽기 질문 유형 분석 연구:고급 과정 교재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41호, 111-137쪽.
- 이은주(2007), “고급 단계 한국어 교재에 사용된 읽기 활동 유형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화여자대학교언어교육원(2008),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읽기·쓰기』,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정선화(2010), “질문 유형이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어문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8-1, 489-513쪽.
- 최윤곤(200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독해』, 서울:한국문화사.

허용(200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인문 한국어』, 서울:다락원.

Day, R., Park, J.S.(2005), *Developing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s*,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17-1, pp.60-73.

Grabe, W., & Stoller, F. L.(2002), *Teaching and researching reading*,
Harlow: Longman.

Nuttall, C.(2005), *Teaching reading skills in a foreign language*,
Macmillan.

<Abstract>

A Study of the analysis of comprehension questions in
teaching Korean reading

- Focused on the comprehension questions in the Korean reading materials for
academic purpose

Koo, Min-j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importance of the comprehension question in teaching of KAP reading, and to find out whether the comprehension questions in KAP reading materials make the learner based interactional reading effectively and learner's creative understanding or not. For achieving this purpose, the analysis of the comprehension questions(about 800 questions) in the published reading materials for the academic purpose with the specific criterion of this study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factual question accounts for about 90% of all, which means the critical lack of a higher open-ended questions.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전자우편 : koominji72@catholic.ac.kr

접수일자 : 2012. 7.31

심사일자 : 2012. 8.22

게재 확정 일자 : 2012. 9.5